GLOBAL
EQUITY

2026. 1. 19.

글로벌주식팀
김도현 Senior Analyst
dohyun3258.kim@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Global 전력설비

가스 화력발전에 우호적인 정책기조를 확인

-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 전력 경매계획을 공개
- Data Center에 대한 전력 공급과 전력요금의 안정을 동시에 꾀하는 방안
- 직접적으로 수혜 기대되는 업종은 가스발전용 터빈 및 송전설비가 될 것으로 전망

긴급 전력 경매계획 공개: Data Center에 대한 원활한 전력공급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전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공개됐다. 미국 에너지성과 13개 주지사들은, Data Center로 공급되는 전력에 대한 긴급경매의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긴급 전력 경매를 운용하는 주체는 미국 최대 전력 GRID 사업자인 PJM Interconnection이다.

수요 측면에서 긴급 전력경매안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Data Center를 건설하는 Tech 기업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긴급 전력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설비증설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Tech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며, 전력설비에 대한 신규투자의 기대규모는 $150억 이상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Data Center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전력 요금의 부담은 줄인다는 상반된 목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번 긴급 전력 경매방안도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단기간내에 비용 경쟁력이 뛰어난 전력을 생산해 Data Center에 공급하는 대안은 결국 가스 화력발전인 것으로 생각된다. 발전용 가스터빈의 선도기업인 GE 버노바(GEV US) 및 Data Center에 특화된 전력설비를 공급하는 버티브 홀딩스(VRT US)에게 긍정적인 Event인 것으로 평가한다.

전력요금의 부담이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 Data Center 운용자가 설비투자를 부담하는 긴급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배경에는, 전력요금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소비자 물가 대비 전력요금의 상승추세는 좀처럼 꺾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Data Center의 확산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의 부담이 경제주체 전반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Data Center 운용자와 Utility 기업간 독점적 전력공급 계약이다.

Data Center가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미국의 전력 생산능력은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Utility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하는 계약이 선행되지 않는 한, 쉽게 전력생산의 증설에 나서기가 어려운 것이 실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안이 긴급 전력 경매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화력발전 기기를 공급하는 기업에 유리한 방안: 트럼프 행정부 및 일부지역 주지사들이 요구하는 긴급 전력 경매방안의 요지는, Tech기업들과 전력 공급자간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Data Center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GRID와 Data Center용 GRID가 분리되면서, Data Center의 전력수요가 일반 전력요금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표1: 긴급 전력 경매 방안의 개요

조건	내용
경매 참여자	전력 공급자/Data Center 운용자
계약 방식	Data Center 운용자와 전력 공급자간 경매를 통해 독점적 장기 공급계약 체결
기간	15년
전력설비에 대한 예상 신규투자 금액	$150억
가격구조	가격 제한조건 존재할 것으로 전망

자료: 언론기사, U.S. Department of Energy, 삼성증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형태이나,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전력 공급방식은 가스 화력발전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주요한 근거에 대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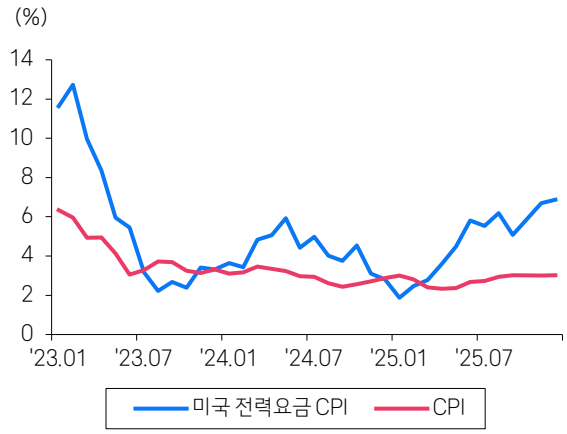
1.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전력 공급방식은 저렴한 생산단가와 신속한 공급능력의 조합이다. 위의 두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결국 가스 화력발전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가스 화력발전의 비용 경쟁력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2. 수요자의 측면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대상이 Data Center의 운용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Data Center의 운용자들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전력의 공급능력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스화력 발전이 보유한 안정적인 공급능력의 장점이 돋보일 수 있는 영역인 것으로 생각한다.

직접적으로는 GE 버노바, 간접적으로는 버티브 홀딩스에 대해 우호적인 Event: 트럼프 행정부 및 일부 지역 주지사들이 요구하는 긴급 전력 경매의 효과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다소 어려운 시점이다. 그러나, Data Center의 설립은 장려하면서도, 이로 인한 전력요금의 상승을 다른 민간 부분으로 이전시키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는 관련된 기업들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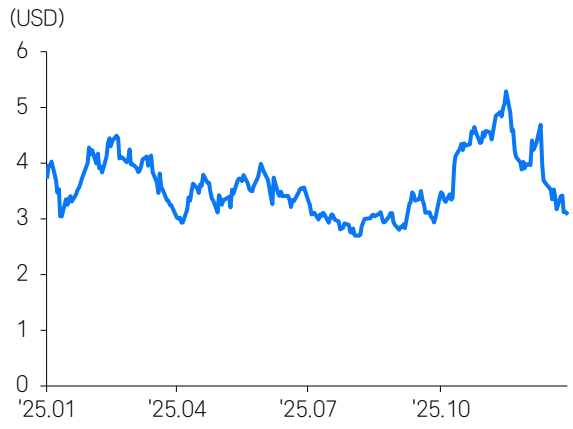
전력공급 및 요금과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는 GE 버노바(GEV US)를 들 수 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긴급 전력 경매가 시행된다면, GE 버노바의 핵심 사업인 가스발전용 터빈 사업의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수주잔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스발전용 터빈의 가격 상승 추세에 기여를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는 GE 버노바의 또 다른 성장동력인 송전설비에 대한 수요도 늘리는 요인이다. 지난 12월 IR 행사 중, GE 버노바의 경영진은 가스 발전용 터빈 및 송전설비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수주잔고가 2028년에는 $2,0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전력설비들에 특화된 사업모델을 보유한 버티브 홀딩스(VRT US)도 이번 긴급 전력 경매계획으로 인한 간접적인 수요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그림 1. 미국 전력 물가지수 VS. 소비자 물가지수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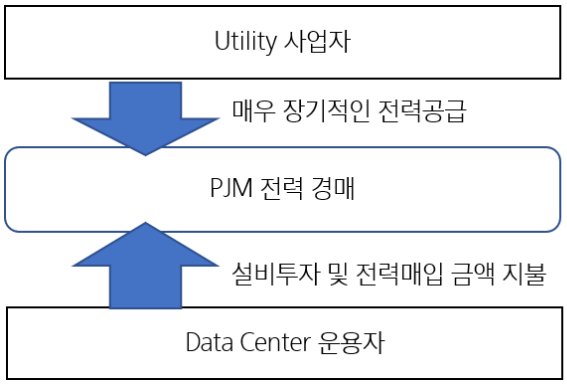
참고: 계절조정 기준, CPI=Urban Consumer CPI
자료: Bloomberg

그림 2. 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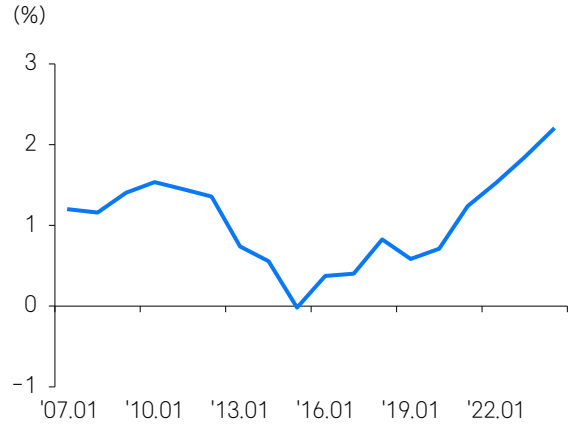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3.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긴급 전력 경매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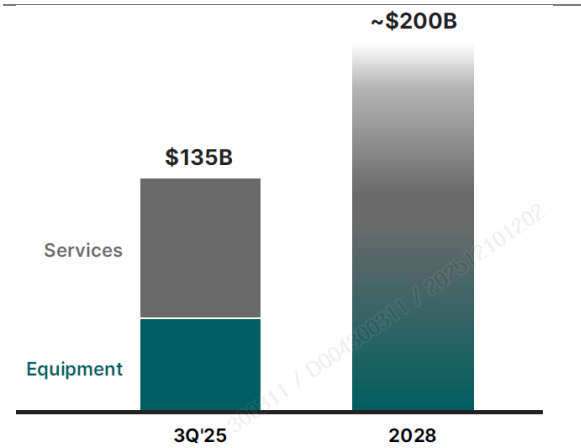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정리

그림 4. 미국 전력 생산능력 성장률 3년 CA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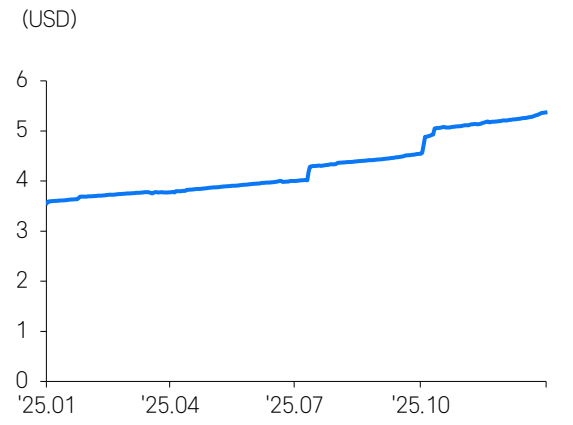
참고: 3년 CAGR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5. 3Q25 VS. 2028년E GE 버노바 수주잔고 전망



참고: 2025년 IR때 제시된 전망치 기준
자료: GE 버노바

그림 6. 버티브 홀딩스 12개월 FWD 실적 기준 EPS 추이



참고:12개월 FWD 실적 기준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월 1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1월 1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